

정신적·물질적 ‘도움 된다’

종교인 72% 50대 이상... 절 수행 불자 26%

△종교인구분포 및 불자수행법

한국인 절반 이상(56.5%)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종교인 97%가 불교(41.6%)와 개신교(41.6%) 및 가톨릭(14.7%)을 믿고 있었다. 3대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비중은 2.8%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2000년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결과(불교 26.3%, 개신교 18.6%, 가톨릭

7%)에 비해 개신교·가톨릭의 종교인구 비중이 유독 높게 나온 것은 20, 30대 연령층의 참여도(48.4%)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교인'의 비중은 연령이 높고 50대 이상(72.3%) 학력이 낮은(중졸이하:63.3%) 가정주부(68.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종교인'은 연령이 낮고(20대:56.4%) 학력이 높은(대재이상:47.7%) 학생(57.8%)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인 67% 2세대 가족형태...년 1% 기부 49%

△형태 및 기부

종교인들은 2세대(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가족 형태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세대(본인 혼자:7.3%)와 1세대(배우자와 둘:14.7%)는 22%,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은 11.2%에 그쳤다. 가족 내 종교 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 전부'

가 함께 믿는다는 응답이 65.5%였다. 이는 '본인 혼자' 믿는다는 응답 17.3%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본인 혼자 믿는다는 응답은 독거세대(67.4%), 50대 이상(23.5%), 중졸이하(30.4%), 여자(20.7%)에서, 가족 일부만 믿는다는 응답은 2세대(19.6%), 40대(24.0%)에서, 가족 전부 2세대(68.5%), 남자(72.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교인의 절반 정도(49.2%)는 자신의 종교단체에 1

가족 함께 신행할 때

‘만족도’ 높아 68%

△영향 및 신행평가

종교인들은 종교참여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된다(90.0%)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움 된다'는 응답은 2세대(92.0%), 개신교(95.9%), 가정주부(93.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움 안 된다'는 3세대 이상(19.4%), 본인 혼자 믿음(17.7%), 불교(15.4%), 부산·울산·경남(19.9%), 20대(15.1%), 남자(14.0%), 자영업(15.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종교인 62.3%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매우:8.0%+잘하고 있는 편:54.4%)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거의:7.6%+잘못하고 있는 편:29.1%)는 부정적 평가는 36.8%였다. '긍정' 평가는 가족전부 믿음(67.5%), 개신교(71.2%), 50대 이상(71.8%), 가정주부(69.9%)에서 높게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이 함께 신행할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혼자(46.2%), 가톨릭(48.7%), 40대(46.1%), 남자(44.0%), 불투칼라(54.3%)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자, 공개 소극적... 85% ‘비종교인 대상 포교 안해’

△포교(또는 전도)활동 및 공개

한국인들의 포교(또는 전도) 활동은 타종교인들에게는 소극적인 반면, 비종교인에게는 적극적이었다. 비종교인들을 포교하기 위해 적극 권유하거나 징점이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응답이 41.6%인 반면, 타종교인에 대해 전도의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81.0%로 나타났다. '비종교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적극 권유한다'는 응답은 개신교(31.7%), 서울(24.2%), 50대 이상(23.0%), 여자(19.5%)에서, '종교의 장점이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응답은 가톨릭(37.2%), 서울(32.8%), 대재이상(30.2%), 화이트칼라(37.4%)에서 많이 나왔다.

또 비종교인에 대한 개신교(66.6%)와 가톨릭신자(42%)들의 '전도' 의향이 불교신자들에 비해 높았다. 타종교인을 만나면 개신교(36.1%), 가톨릭(12.7%) 신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지만, 불교신자 97.2%는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권유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불교신자는 비종교인들을 만나더라도 '종교의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고 별로 대응하지 않는다'(84.6%)'고 답했다.

자신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드러내는 편(46.5%)과 드러내지 않는 편(45.0%)이란 응답을 비슷하게 했다.

'불교' 신자는 연령 높음(50대이상:31.6%) 여자(27.7%)가 많았으며, 지역으로는 부산·울산·경남(41.3%), 대구·경북(33.3%), 대전·충청(31.3%) 순이었다. '개신교' 신자는 서울(35.2%), 여자(26.5%)가 많았고, '가톨릭' 신자는 50대이상(11.6%)에서 많았다. '불교신자들의 일상화된 수행법'은 절(26.1%), 독경(7.1%), 기도(5.3%), 참선(4.2%) 등의 순이었으며, 일상화된 수행법이 따로 없다는 응답도 57.3%나 됐다. '절'은 서울(34.4%), 30대(34.6%), 남자(29.9%), 자영업(40.3%)이, '독경염불'은 인천·경기(11.4%), 50대 이상(9.7%), 여자(10.3%)가, '참선'은 남자(8.7%)가 많이 했다.

년 동안 1% 미만 기부한다. 10% 이상 기부자는 17.9%, 1~3% 미만 기부자는 15.3%, 5~10% 미만 기부자는 9.1%, 3~5% 미만은 6.1%였다. '1% 미만'은 본인혼자 믿음(69.6%), 불교(69.7%), 대전·충청(71.4%), 20대(58.1%), 중졸이하(62.8%)에서, '3~5% 미만'은 자영업(12.4%)에서, '10% 이상'은 가족전부 믿음(21.6%), 개신교(35.2%), 서울(29.5%), 화이트칼라(27.9%)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불교신자와 가톨릭신자들의 기부정도는 낮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십일조' 등의 영향으로 헌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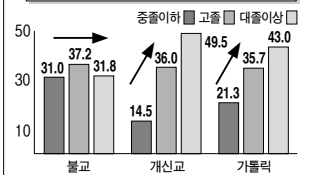
◆조사 설계

조사대상(요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Telephone Survey)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할당표집 (Quota Sampling)
유효표본: 총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1%
조사시기: 2004. 9. 9 ~ 9. 10
조사기관: (주) 리서치 앤 리서치(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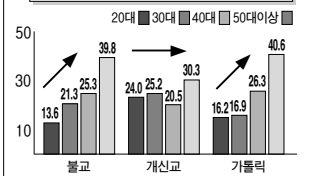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표

성 별	전 체		사레수	비율
	남자	여자	1,000	100.0%
연 령 별	20대	232	23.2%	
	30대	252	25.2%	
	40대	224	22.4%	
	50대이상	292	29.2%	
결혼여부	기혼	751	75.1%	
	미혼	249	24.9%	
거주지별	서울	220	22.0%	
	인천/경기	251	25.1%	
	부산/울산/경남	165	16.5%	
	대구/경북	109	10.9%	
	광주/전라	112	11.2%	
	대전/충청	102	10.2%	
직업별	농림어업	39	3.9%	
	자영업	198	19.8%	
	불투칼라	72	7.2%	
	화이트칼라	162	16.2%	
	가정주부	344	34.4%	
	학생	97	9.7%	
학력별	무직/기타	88	8.8%	
	중졸이하	208	20.8%	
	고졸	358	35.8%	
대재이상	435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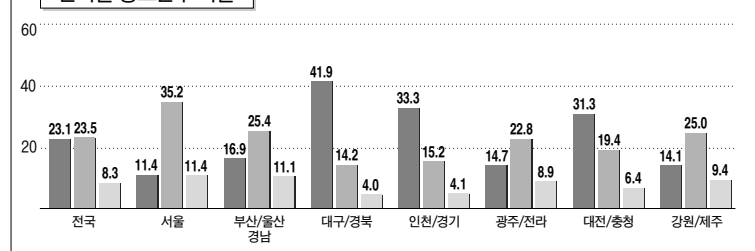
종교인구 비율(교육 수준별 %)



종교인구 비율(연령별 %)



지역별 종교인구 비율



성명서

우리 종단의 근현대사는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배격하고 종단 자주성을 지켜왔던 지난한 과정이었다. 불교 5년여 전까지도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이 사법부의 오판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던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종단의 현실이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세속의 논리로 종단이 부당하게 간섭 당할 때마다 불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었던 전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4일, 조계종 제14교구 말사 선암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법 민사6부에서 내린 전일 주지에 대한 종단 징계 효력 정지와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의 직무 집행 정지 결정도 과거의 부당한 간섭과 교권침해의 연장에 다른 아니다. 종법에 명시된 사찰주지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세가법의 판단을 구하는 등 종헌과 종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단의 화합과 풍무행정의 기본질서를 깨뜨린 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종단 자체적인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종단을 또다시 분규로 몰아가기 위한 자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종단의 징계에 반발해서 사회법에 제소했던 김용민(정아)은 부산 당감동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 100여원이 훨씬 넘는 사찰 토지 수용금을 총무원에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유용하였

으며, 또한 종단의 승인 없이 지역 주민의 뜻에 반하는 장례식장 건축사업에 착수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종단과 사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이다. 종단에서는 총무원 뿐 아니라 종단의 사법기구인 호계원에서 종헌종법에 정해진 적법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징계하였고, 입법기구이자 2천만 종도의 대의기구인 중앙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징계를 결의하는 등 조계종의 중앙종무기관과 해당 본사인 범어사 대중도 이구동성으로 일벌백계를 동의했던 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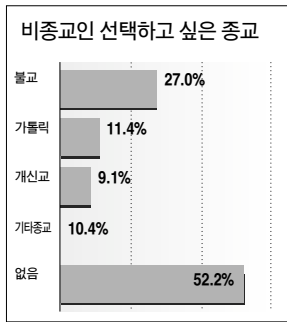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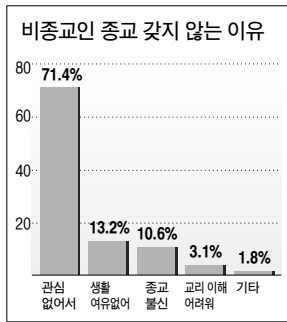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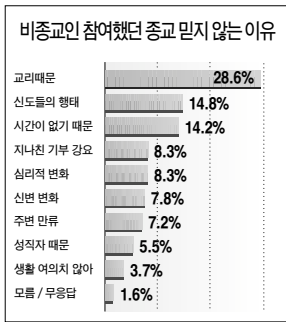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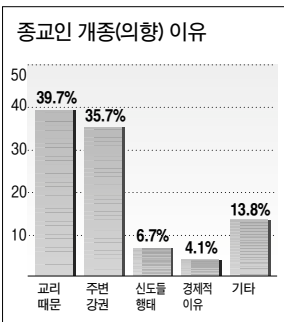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에도 종단의 현실을 무시한 담당 재판부만이 손으로 하늘을 가린 채 당사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어는 일방에 경도된 결정을 내린 것은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2천만 불교도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2천만 불교도와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며, 더불어 추후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이번 담당재판부의 오판과 경도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 2548(2004)년 10월 5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 선암사 정상화 범종단 대책위원회

총무원/교육원/포교원/호계원/중앙총회 범어사· 선암사 실패막 특별위원회(2교구 본사 용주사/3교구 본사 신홍사/4교구 본사 월정사/5교구 본사 범주사/6교구 본사 마곡사/7교구 본사 수덕사/8교구 본사 적지사/9교구 본사 동화사/10교구 본사 은해사/11교구 본사 불국사/12교구 본사 해인사/13교구 본사 쌍계사/14교구 본사 범어사/15교구 본사 통도사/16교구 본사 고운사/17교구 본사 금산사/18교구 본사 백암사/19교구 본사 화양사/21교구 본사 송광사/22교구 본사 대흥사/23교구 본사 관음사/24교구 본사 선운사/25교구 본사 봉선사/범어사 내 선암사 대책위원회/중앙신도회/서울광역시신도회/충북광역시신도회/울산광역시신도회/대구광역시신도회/강원광역시신도회/전북광역시신도회/3교구신도회/4교구신도회/5교구신도회/6교구신도회/7교구신도회/8교구신도회/9교구신도회/10교구신도회/11교구신도회/13교구신도회/14교구신도회/15교구신도회/16교구신도회/19교구신도회/21교구신도회/22교구신도회/23교구신도회/25교구신도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전국불자조정연합회/대한불교총동맹회/한국교수불자연합회/(사)대한불교청년회/한국전기기부자연합회/한국대학불교연합회/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대한불교전국신인연합회/불교로봇레이션협회/대한불교어린이회/지자연합회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국인의 종교의식 설문)

SQ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SQ2. 성계지만,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SQ3. 결혼 하셨습니까, 미혼이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SQ4. ○○님께서서는 현재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광주
⑤ 인천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경북 ⑫ 충남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5. ○○님께서서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가톨릭 ④ 기타종교
⑤ 없다 ⑥ 없음 ⑦ 없음 ⑧ 없음

SQ5-1. 그럼, ○○님께서서는 일상화된 수행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절 ② 참선 ③ 묵상기도 ④ 기타
⑤ 특강염불 ⑥ 따로 없다 ⑦ 없음 ⑧ 없음

【종교인 문항 : 문1-문12】

- 님의 가족 행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본인 혼자 신다(독거세대) ② 배우자와 같이 신다(1세대)
 ③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신다(2세대) ④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함께 신다(3세대 이상)
 - 그럼, ○○님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됩니까?
 ① 본인 혼자 믿는다 ② 가족 일부만 믿는다 ③ 온 가족이 함께 믿는다
 - 님께서서는 종교를 가짐으로써 정신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안 된다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님께서서는 종교에 대한 믿음의 표시(십자가, 영주 등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님께서서는 직장이나 모임 등 단체생활에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① 드러내는 편이다 ②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③ 경우에 따라서 드러낸다
 - 님께서서는 혹시라도 종교를 바꿔 볼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바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음 ③ 없음 ④ 없음
- 6-1. (문6에서 ③번 응답자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리 때문에 ② 성직자 때문에 ③ 주변의 강권때문에
 ④ 경제적 이유때문에 ⑤ 신도들의 행태 때문에 ⑥ 기타)
- 님께서 믿고 있는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가운데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가톨릭 ④ 기타 종교) ⑤ 없다
 - 그럼, 가장 거부감이 느껴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가톨릭 ④ 기타 종교) ⑤ 없다
 - 님께서서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을 만날 경우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① 자신의 종교를 적극 권유한다 ② 종교의 정당이나 필요성을 설명한다
 ③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별로 대응하지 않는다
 - 그럼, 타 종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① 자신의 종교를 적극 권유한다 ② 상대의 반응을 보아 권유한다 ③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권유하지 않는다
 - 님께서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② 잘 하고 있는 편이다 ③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④ 거의 못하고 있다
 - 님께서서는 본인 1년 수입의 대략 어느 정도를 자신의 종교 단체에 기부하십니까?
 ① 1% 미만 ② 1-3% 미만 ③ 3-5% 미만 ④ 5-10% 미만 ⑤ 10% 이상
 ● **문12까지 응답 후, 문 17로 이동**

【비종교인 문항 : 문13-문16】

- 님께서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② 종교에 대한 불신때문에
 ③ 교리 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④ 종교에 원래 관심이 없어서 ⑤ 기타)
 - 그럼, ○○님께서서는 종교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음 ③ 없음 ④ 없음
- 14-1. (문 14에서 ③번 응답자만) 어떤 종교를 믿었습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가톨릭 ④ 기타 종교)
- 14-2. (문 14에서 ③번 응답자만) 그럼, 그 종교를 얼마 동안이나 믿었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4-3. (문 14에서 ③번 응답자만) 현재 그 종교를 믿지 않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리 때문에 ② 성직자 때문에 ③ 주변의 만류 때문에
 ④ 지나친 기부 강요때문에 ⑤ 신도들의 행태 때문에 ⑥ 기타)
15. 만약 종교를 갖게 된다면 ○○님께서서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가톨릭 ④ 기타 종교) ⑤ 없다 ● **문 16으로 이동**
- 15-1. (문 15에서 ①~④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그 종교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 죽은 다음의 삶을 위해 ② 마음의 평안을 위해 ③ 나 자신과 가족, 친지들이 살피었으면 해서
 ④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⑤ 사회적 교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⑥ 기타)
16. ○○님께서 보시기에 21세기 정보사회 시대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가톨릭 ④ 기타 종교 ⑤ 없다

【종교인·비종교인 공통 문항 : 문18-문19】

17. ○○님께서서는 우리 사회에도 앞으로 종교간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매우 많이 발생할 것이다 ② 많이 발생할 것이다 ③ 별로 발생할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발생할지 않을 것이다
18. ○○님께서서는 대선이나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의 종교를 고려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① 매우 고려한다 ② 다소 고려하는 편이다 ③ 별로 고려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비종교인 “불교 믿고 싶다” 27%

불자들 주변 영향 커… 타종교 호감 없다 76.2%

△개종 및 호감도

개종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개종을 경험한 종교인의 비율은 7.6%였다. 본인혼자 믿음(15.8%), 기혼(8.8%)에서 개종비율이 높았고, 주변 개종(의향) 이유로는 교리(39.7%), 주변의 강권

(35.7%), 신도들의 행태(6.7%), 경제적인 어려움(4.1%) 등을 꼽았다. '교리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개신교(56.5%)와 가톨릭(55%)에서, '주변의 강권 때문'에 는 불교(4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신교와 가톨릭신자들이 교리 때문에 개종을 고민하는 반면, 불교신자들은 주변의 강권 때문에 개종하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중에서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76.2%로 나왔다. 그러나 가톨릭(11.8%)과 불교(9.9%)에 높은 호감을 보였다. 반면 가장 거부감 가는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12.7%)과 개신교(12.6%)였다.

호감가는 종교로 '가톨릭'을 꼽은 종교인은 불교(19.5%), 대전·충청(21.1%), 가정주부(15.9%)에서, '불교'는 가톨릭(46.8%), 인천·경기(15.7%), 40~50대 이상(22.9%), 대재이상(13.5%), 남자(13.9%)에서, '개신교'는 불교(3.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부감 가는 종교로 '여호와의 증인'을 꼽은 응답자는 가톨릭(17%), 개신교(15.9%)에서, '개신교'는 가톨릭(23.1%), 불교(20.9%)에서, '불교'는 개신교(7.3%), '명일교'는 개신교(4.6%), '가톨릭'은 기타종교(5.3%)에서 많았다.

참여 경험 있으나 교리 때문에 믿지 않게 돼

△비종교인의 종교 의식

비종교인 71.4%는 '종교에 원래 관심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13.2%), 종교에 대한 불신 때문에(10.6%), 교리 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3.1%)라고 답했다. '종교에 원래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0대

(80.9%), 미혼(77.8%)에서,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는 50대이상(22.6%)에서, '교리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서'는 화이트칼라(9.5%)에서 높았다. 과거 '종교 참여 경험이 있다'는 비종교인도 40.4%에 달했다. 참여 종교는 개신교(65.4%), 불교(21.1%), 가톨릭(11.2%) 순이었으며, 참여 기간은 3년 미만(53.4%), 10년 이상(13.9%) 순이었다. 종교에 참여한 적이 있는 비종교인

은 서울지역(51.0%), 화이트칼라(48.8%)층이 높았다. 종교를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50대이상(70.6%), 중졸이하(72.5%)가 많았다.

과거에 믿었던 종교를 현재 믿지 않는 이유로는 교리 때문(28.6%), 신도들의 행태 때문(14.8%), 시간이 없기 때문(14.2%), 지나친 기부 강요(8.3%) 순으로 응답했다. '불교'를 믿지 않게 된 요인으로는 교리 때문(28.8%), 시간이 없어(15.2%), 신도들의 행태 (12.8%), 신변의 변화(12.5%), 심리적 변화(10.6%), 지나친 기부강요(7.7%),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7.5%), 주변의 만류 때문(4.9%) 순이었다. '개신교'를 믿지 않게 된 이유로는 교리(32.7%)와 신도들 행태(16%), '가톨릭'은 시간(35.2%)과 심리적 변화(19.9%)를 꼽았다.

불교 선택 이유, '마음 평안줄 것 같다' 27%

△선택하고 싶은 종교 및 이유

비종교인들이 만약 종교를 갖게 될 경우 선택하고 싶은 종교는 '불교'(27.0%)였다. 이어 가톨릭(11.4%), 개신교(9.1%)순이었으며, '선택하고 싶은 종교가 없다'고 말한 응답자도 52.2%나 됐다.

불교를 선택한 응답자는 대구·경북(35.9%), 부산·경남(31.4%), 강원·제주(28%), 광주·전라(26.2%) 등 전국적으로 20~30대(70%)층이 많았다. 이들은 불교를 선택한 이유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49.8%), 나 자신과 가족/친지들이 잘되었으면 해서(32.3%),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9.7%), 사회적 교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2.5%)라고 설명했다. '가톨릭'은 40대(17.1%), '개신교'는 화이트칼

김원우·남동우 기자

결 의 문

대한불교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성을 고이 지켜 오면서 우리 민족과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단체임을 자부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영욕의 세월을 반복하면서도 찬란한 민족의 문화를 꽃피우고 중생들의 삶과 함께 해온 것은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나가야 할 한국불교의 자력인 것이다.

이러한 전통과 자력으로, 조계종단이 창립된 이래 인구의 부당한 침해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종단의 모든 구성원은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종교 단체 고유의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 종단의 자주성과 안정, 화합을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산 당감동 소재 선암사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무색해질 만큼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 선암사 전임 주지와 그 배후, 그리고 종단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조차 없는 무지한 재판부에 의해 조계종단의 구성원 전체가 소중히 지켜가고 있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 유린되는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전국의 교구 본사 주지 일동은 종교 단체 내부의 질서와 규율을 해치려는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에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전개해 나갈것을 결의한다.

- 종단의 구성원들을 약용하여 권리와 혜택을 한껏 누리면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통사찰의 유구한 역사와 그 재산을 사유화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

부산 선암사의 전 주지 김용민(정야)과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은 145억원에 달하는 천년고찰 선암사의 토지 수용금을 임의로 처리하고 그 중 약 100억원이 넘는 규모를 종단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유용하였으며, 사회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종단의 권위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소송을 일삼는 해중행위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한편으로는 조계종단의 승려이자 조계종단에 소속된 사찰을 운영하는 등 종단에 소속된 자로서 권리는 향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단과 사찰이 무관하며 종단의 사찰 재산 관리권과 인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매우 고착한 행태와 위험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난 9월 24일 부산지법 민사6부에서는 부산 선암사의 전임 주지 김용민(정야)에 대한 조계종단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고, 조계종단이 새롭게 임명한 주지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지켜 오고 있는 조계종단의 위상과 행정 체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매우 오만하고 부당한 결정이며,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전국 사찰의 모든 대중과 신도들의 동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종단의 권위인 종헌·종법을 인정하지 않고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해중 행위를 한 부산 선암사 전임 주지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종단 집행부에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의 의지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과 부산 선암사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의 자주성과 권위를 스스로 존중하고 한국불교 대표 종단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더 용맹정진 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 2548(2004)년 10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